

대구자원봉사포럼 제79차 정기포럼

온기나눔, 취약계층 자원봉사 활동으로 사회적 관계망 회복 방안

온기나눔
함께하는 대구
더 따뜻한 대한민국

일시 _ 2024. 5. 22.(수) 10:00

장소 _ 대구경북디자인진흥원 컨벤션홀

주최 _  대구광역시

주관 _  사단법인 대구자원봉사포럼

다양해지는 세상에서 협력의 공통과제 찾기

김 의 옥

재) 한국중앙자원봉사센터장

1. 점점 다양해지는 자원봉사자들

사회의 변화 양상이 단순함에서 복잡함으로, 집단성에서 개인성으로, 강한 소속감에서 느슨한 연결감으로 전환된다는 것은 대체로 동의할 수 있을 것이다. 개인주의의 변화양상을 1세대 개인주의(평등한 1인으로 구성되는 국민국가), 2세대 개인주의(관심과 주장과 신념에 근거하는 정체성의 사회), 그리고 더 분화되고 개체화되는 3세대 개인주의로 변화하고 있는 양상을 분석한 '나와 타자들'¹⁾에서는 개인의 다양성을 강화해온 개인주의가 서로 혐오하고, 배타하는 관계로 고착화하고 있는 현재의 개인화 양상에 대한 심각성을 경고하고 있다.

2. 다양한 사람들과 새롭게 연결하는 방법

함께 모여 사는 동네의 동질적 경험이 줄어드는 사회에서 주민들은 새로운 소통방식과 다각적인 정보채널을 가지게 된다. 자원봉사도 기존의 공동체의 유지와 발전이라는 정해진 과제를 넘어서서, 다양한 관심사와 주장에 입각한 내용들이 증가하게 된다. 전통적인 자원봉사, 자선활동의 규범적 활동에서 분화된 환경문제, 인권문제, 소수자 문제 등에 관심갖는 다양한 시민운동이 등장하게 된 것이다. 2015년 파리기후협약에서 채택된 전 지구적인 지속가능성을 규정하는 16개의 자원봉사 과제가 전면화된 것은 이러한 정보와 지식의 체계화에 기반을 두는 것이다. 자원봉사의 핵심적인 역할이 구체적으로 인식되고, 보편적으로 합의되는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는 것으로 확장되면서 자원봉사의 사전적 개념도 개인의 자발성과 이타성에 집중된 개념에서 집합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목적의식적인 노력을 포괄하는 것으로 중심이 이동된다. 즉 "자원봉사는 우리가 직면하는 공동의 절실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집합적인 실천"이며, 자원봉사의 실행방식도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 협력함으로써 실제적인 문제해결에 기여하는 방식"으로 조직화 되고 있다.

3. 자원봉사에 참여하는 공감대를 만들자.

인간이 자발적으로 타인의 문제, 공동의 과제에 반응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되는 힘은 '공감력'이다. 즉 남의 문제를 나의 문제로 여기고 받아들이게 됨으로써, 나의 과제, 나의 욕구로 관리하게 되는 공감이고 그 기반이 되는 것이다. '공감은 지능이다'²⁾라는 책에서 공감을 일으키는 세가지 요소로 공통의 경험(경험적 공감), 관련된 지식(인지적 공감), 감성적 공감(정서적 공감)을 제시한다.

1) 나와 타자들, 이출데 카림, 출판 민음사, 2019.03.08.

2) 공감은 지능이다 - 신경과학이 밝힌 더 나은 삶을 사는 기술, 자밀 자키(지은이), 정지인(옮긴이), 심심

4. 요즘 세상, 공통의 과제 찾기

다중이 참여하는 활동을 기획하는 것은 공통의 해결과제라는 외부의 요구, 다수의 참가자들의 공통적인 내적욕구가 만나는 접점을 찾는 것이다. 즉 공동체의 필요성과, 개인의 유익이라는 접합점이 만들어질 때 자발적인 참여의 맥락이 형성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두가지는 서로 배타적인 것이 아니라, 상황과 조건에 따라서 다양한 주체들의 반응을 조직할 것이며, 이러한 맥락에서 각 이슈와 주체의 특성에 따라 자원봉사의 구체적인 양상이 결정된다. 지역사회가 가지고 있는 집단적인 자원봉사의 일감은 그것을 성공적으로 수행하는 것에 초점을 둘 것이 아니라, 더 많은사람들에게 참여와 성취의 경험을 제공하는 무대로 활용하는데 초점을 뒀야 한다. 이렇듯, 자원봉사를 확장하기 위해서는 봉사활동의 매개가 되는 관련 정책이나 제도, 관계기관과의 협력사업을 기획하고, 융합적인 목표관리가 필요하다.

5. 함께 협력하는 자원봉사의 거버넌스가 관건이다.

정부 정책에서도 다양한 사회변화에 대응하는 중간지원조직의 과제들이 다각도로 적용되면서 민관 거버넌스의 접점도 다차원적으로 적용되고 있다. 또한 기후위기가 심화되면서 재난재해가 일상화되고, 이에 대응하는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운영도 새로운 사회적 문제에 대한 민관거버넌스의 중요한 모델이 되고 있다. 최근 행정안전부가 모금과 봉사활동의 유기적 결합을 위한 제도개선, 관련 단체들과 협력사업 개발을 위한 '온기나눔 캠페인'도 지금 전 사회적으로 만연하고 있는 개인화, 고립화의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새로운 거버넌스 시도로서 그 의미를 찾을 수 있겠다.

6. 집합적인 실천을 직조(織造)하는 캠페인

여러 가지 사회문제가 복합적으로 얽혀있는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고착화된 영역중심의 사고를 넘어서야 한다. 자원봉사, 모금사업, 정부의 각 부서별 사업을 따로따로 하는 분절적인 접근법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복합적인 사회문제를 다루기 위해서는 융합, 복합, 통합적 접근법이 모든 시민사회 분야에 요구되고 있다. 이러한 접근방법을 캠페인이라고 말한다.

- 1) 안녕 캠페인 2) 온기나눔 캠페인 3) 인구변화에 대응하는 지역간 협력 캠페인

전국의 자원봉사센터는 우리 사회가 공동으로 직면하고 있는 절실하고 절박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집합적인 실천 캠페인의 마중물이 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런 범 국민적 실천 캠페인을 통해서 실제적인 문제 해결의 성과를 만들기 위해서는 모든 당사자들이 공통의 문제로 받아들이고 협력하는 문화가 자리 잡아야 한다. 다만 이러한 캠페인의 명분과 중요성이 추상적인 구호에 머물지 않고, 실제적인 문제해결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협력과 거버넌스를 위한 공동의 규칙을 만들고, 각각이 새로운 협업의 방식으로 일하도록 하는 체질개선, 그리고 캠페인을 통해서 모두가 성과를 공유할 수 있는 방식 등을 구체적으로 마련해야 한다. 그래야 이런 캠페인을 통해서 흩어져 있는 시민사회가 서로 씨줄과 날줄처럼 직조되어 가며, 보다나은 사회의 비전을 그려낼 수 있을 것이다. (끝, 아님 계속...)

어려운 이웃 지원, 사회적 관계망 회복이 관건이다.

박 만 원

대구광역시 청년여성교육국 교육청소년과 주무관

○ ‘온기나눔 범국민 캠페인’ 왜 필요한가?

‘온기나눔 범국민 캠페인’은 각종 재난·재해와 사회·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이웃을 위로하고 서로가 격려하는 자원봉사·기부·자선 활동을 아우르는 캠페인으로 기부·봉사 등 국가적 나눔 분위기 조성을 구축·운영하는데 목적이 있는 범국민적 활동이다. 한국 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저출생·양극화·고립·느슨한 관계성으로 인해 발생하는 여러 사회적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데 있어 핵심은 지역사회가 가지는 유대성의 강화, 즉 사회적 관계망의 회복이다. ‘이음’이 절실한 시대이다.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매우 시기적절한 캠페인이라 생각한다.

○ 우리사회 복지분야의 주요 문제는?

2014년 2월 송파 세 모녀 사건

2022년 8월 수원 세 모녀 사건

2022년 3월 수성구 간병살인 사건.... 징역 4년

대한민국은 과거 여러 나라들로부터 원조를 받던 나라에서 지금은 아프리카 등 최빈국을 지원하는 나라로 변화했는데 지구상에서 유일한 사례인 국가라고 한다. 하지만 국내에도 여러 가지 문제점 또한 가지고 있다. 이 중 한국 사회에 존재하는 복지분야의 주요 문제는 양극화로 인한 생계곤란, 독거노인의 안전, 장애인의 이동권과 저소득, 고령화 사회 및 저출생으로 인한 후세대의 부담 가중, 돌봄의 사회화에 따른 비용의 증가, 가족돌봄 청년, 고립·은둔 청년 등 다양한 문제를 가지고 있다. 이들 문제의 원인은 저출생·양극화·고립 등으로 볼 수 있겠다. 결국 복지의 문제는 느슨해진 사회적 관계망의 문제이다.

〈 대구광역시의 주요 복지서비스 대상자 현황〉

(단위: 명)

합 계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차상위계층	노 인 (독거노인)	등록장애인	보훈대상자
814,309	154,802	20,452	466,338 (135,819)	130,520	42,197

○ 부족한 ‘복지 자원’의 문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긴급복지 등으로 대표되는 공적부조 제도는 자산조사를 기본으로 시행되는 제도의 특성상 사각지대가 생겨날 수 있다. 앞에서 예를 든 불행한 사건들의 주된 원인이기도 하다. 이를 보충할 플러스 알파(α)가 필요하다. 소위 말하는 실제 생활은 곤란하나 공공부조의 도움을 받지 못하는 제도권 밖 대상자들의 보호에 관한 문제이다. 또한 1인 가구의 증가와 돌봄의 사회화 현상은 복지서비스에 있어 국가와 전문 복지기관에서 다양한 복지서비스들을 만들어 가지만 여전히 서비스의 사각지대가 존재하기 마련이다.

이러한 문제에 대한 해결책으로 여러 시도가 이어지고 있다. 2015년 주민자치센터를 행정복지센터로 전환 하는 사업인 읍면동 복지허브화 사업에서 주민참여를 기반으로 한 민관협력과 복지자원개발을 강조하였는데 이는 어려운 이웃을 돕는데 있어 시민 참여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이다. 2022년 9월에 발표한 대구시의 복지위기가구 종합지원 대책(5대 정책 22대 세부 과제)은 ‘더 빨리 찾아내고, 더 넓게 참여하고, 더 두텁게 보장하고’로 요약할 수 있는데 ‘온기나눔 범국민 캠페인’은 세 가지 모두를 아우르는 운동이라 할 수 있다.

○ 대안은 ‘더 빨리 찾아내고, 더 넓게 참여하고, 더 두텁게 보장하고’

‘더 빨리 찾아내고’

읍·면·동, 시·구·군에서는 다양한 공공부조 정책들과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이들 공공기관에 찾아가서 도움을 요청하는 것을 꺼리는 시민들이 여전히 많다.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받지 못 한다.’는 법언이 있다. 지원정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것이 문제인데 결국은 행정력과 주민력을 활용해서 빨리 찾아내는 것이 최선의 대안이다.

‘더 넓게 참여하고’

그렇다면 더 빨리 찾아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할까? 행정기관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결국은 주민력을 높여나가는 일이 대안이다. 내가 살고 있는 마을을 좀 더 주의깊게 들여다 볼 필요가 있다. 어려운 이웃을 발견하면 가까운 행정기관이나 129번으로 제보할 수 있어야 한다. ‘힘이 들 땐 ☎129, 어려운 이웃 제보 ☎12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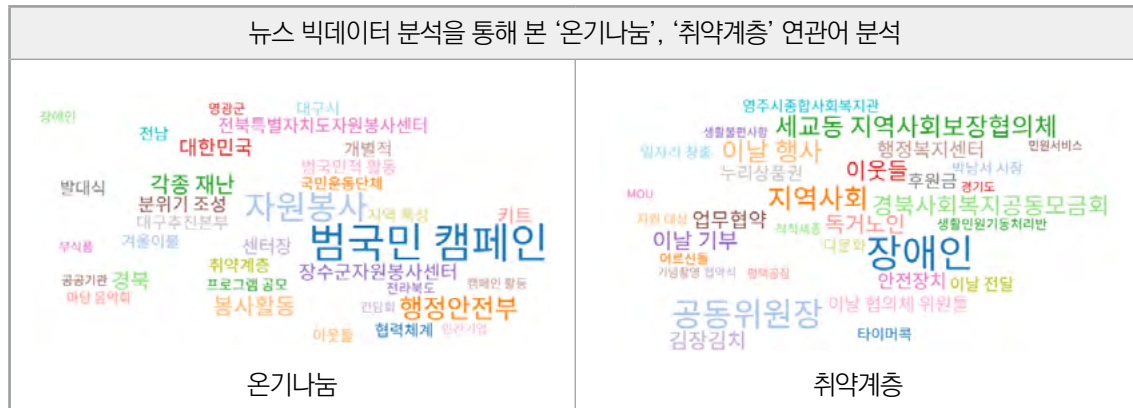
‘더 두텁게 보장하고’

더 두텁게 보장한다는 것은 촘촘한 지원체계를 만들어 간다는 것이다. 자원봉사와 후원이 필요한 부분이다. 국가재정의 확대는 일정한 한계를 가질 수 있는데 민간기업의 단체 자원봉사와 사회공헌활동의 확대(ESG)와 더불어 개인들의 활동 또한 절실히 필요하다. 이를 통해 공동체를 회복할 수 있고 모두가 행복한 사회를 만들어 갈 수 있을 것이다.

온기나눔을 위한 취약계층 및 지원정책의 이해

진혜민

대구광역시행복진흥사회서비스원 정책연구실 연구3팀장



※ 검색기간: 온기나눔(2023.12.10.~2024.5.10.), 취약계층(2023.5.10.~2024.5.10.) 검색일: 2024.5.10.

‘더 따뜻한 대구를 위한 온기나눔’,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확대를 사회관계망을 회복하고 지역사회 내 복지 시각시대 문제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 내 함께 살아가고 있는 취약계층에 대한 현황 및 실태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취약계층은 사전적 의미로 다른 계층에 비해 무르고 약하여 사회적으로 보호가 필요한 계층이라고 정의하고 주로 노인, 아동, 장애인을 일컫고 있지만, 대상별(저소득층, 노숙인, 다문화 및 한부모 등), 생애주기별(아동, 청소년, 노인), 영역별(경제취약계층, 교육취약계층, 주거취약계층, 돌봄취약계층 등), 이슈별(학대, 은둔·고립, 고독사 등) 취약계층은 매우 다양하다.

취약계층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저소득층, 장애인, 노숙인, 다문화 및 한부모가구, 아동학대, 자립준비청년, 가족돌봄청년, 고립·은둔청년, 고독사를 중심으로 주요 실태와 지원정책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구분	주요 현황	지원 정책
기초생활보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국) 인구대비 수급자 비율 4.6%, 수급자 수 235만 9천명(169만9천가구) • (대구) 인구대비 수급자 비율 6.1%, 수급자 수 143,286명(102,860가구) ※ 자료: 통계청, 국민기초생활수급자현황, 주민등록인구현황(202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구 특성이나 처한 상황에 따라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교육비 등 지원
장애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국) 264만2천명 • (대구) 13만명, 대구시 장애인복지시설 165개소 ※ 자료: 대구시 내부자료(2023), 통계청, 장애인현황(202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저소득장애인 지원, 장애인 자립 생활 지원, 장애인 사회활동 지원 등
노숙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국) 8,956명 • (대구) 871명(전국대비 9.7%) ※ 자료: 임택영 외(2021), 노숙인 등의 실태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숙인종합지원센터, 일시보호시설 및 자활시설 운영 등

구분	주요 현황	지원 정책
다문화 가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국) 399,396가구, 1,151,004가구원 • (대구) 11,868가구, 35,028가구원 ※ 자료: 통계청, 인구총조사(202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족센터 • 다문화가족 자녀 교육지원 및 취업 지원
한부모 가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국) 1,494,067가구 • (대구) 76,262가구/ 저소득한부모가족: 26,091명('21), 27,656명('22), 28,635명('23) ※ 자료: 통계청, 인구총조사(2022), 대구시 내부자료(202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취약·위기가족 사례관리 • 저소득한부모 가족 및 청소년부모 지원 강화
아동학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국) 신고접수 44,531건, 피해아동발견율* 3.85명 • (대구) 신고접수 1,800건, 피해아동발견율* 3.73명 ※ 인구천명당, 자료: 보건복지부, 2022 아동학대 주요통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동보호전문기관 (재학대 예방, 사례관리) • 아동보호전담기구 운영
학교밖 청소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구) 22년 기준 학업중단 청소년 1,630명, 학교밖청소년 11,784명 (학령인구의 4.6%) ※ 자료: 김민지(2023), 대구지역 학교밖청소년 지원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 상담지원, 교육지원, 직업체험 및 취업지원, 자립지원
자립준비 청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국) 2,368명('20), 2,102명('21), 1,740명('22) • (대구) 89명('20), 75명('21), 50명('22) ※ 자료: 아동권리보장원, 아동주요통계, 2022년 자립준비청년 현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제, 심리정서, 주거, 진학취업 지원 • 대구 자립지원전담기관 운영
가족돌봄 청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국) 가족돌봄청년의 주당 평균 돌봄시간 21.6시간, 평균 돌봄기간 46.1개월, 삶의 불만족 비율(돌봄청년 22.2% > 일반청년 10.0%) 우울감 유병률(돌봄청년 61.5% > 일반청년 8.5%) ※ 자료: 보건복지부 보도자료(2023.4.27.), 2022년 가족돌봄청년 실태조사 결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족돌봄청년 지원대책 수립 방안 발표(22.2.14.) • 일상돌봄서비스 사업 추진(23.8.) • 가족돌봄청년 확인-지원-관리 원스톱 통합서비스 제공(23.9.) • 대구시 가족돌봄청년 실태조사('24)
고립·은둔 청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국) 고립·은둔청년 5%('21년), 54만명 추정 ※ 자료: 관계부처합동, 2023년 고립·은둔청년 실태조사 결과 사전설명 • 대구지역 사회적고립 청년 추정치 8.2%(물리적고립 1.0%, 정서적고립 7.2%) -청년인구 453,121명 중 37,155명 정도 • 대구지역 은둔청년 추정치 3.0% -청년인구 453,121명 중 13,593명 정도 ※ 자료: 황동진 외(2023), 대구시 사회적고립·은둔 청년현황과 정책과제 연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립·은둔 청년 지원방안 발표 (23.12.13.) • 대구시 고립청년 지원 조례(22.10.) • 대구시 사회적고립청년 실태조사 ('24)
고독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독사 위험군: 인구대비 3%, 1인가구 대비 21.3% -청년(19~29세, 30대) 1인가구 중 위험군: 19~29세 9.7%, 30대 16.6% 추정 -중장년(40~60대) 1인가구 중 위험군: 40대 25.8%, 50대 33.9%, 60대 30.2% 추정 -노인(70대 이상) 1인가구 중 위험군: 16.2% 추정 • (대구) 고독사 사망자 수 124명, 인구십만명당 5.2명, 사망자수 대비 0.9% ※ 자료: 관계부처합동(2023.5.17), 제1차 고독사예방 기본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1차 고독사 예방 기본계획 (23.5.17.) • 2024년 대구광역시 고독사 예방 시행계획, 상시적 실태조사 체계 구축

매스컴을 통해 접하게 되는 취약계층 관련 각종 사건·사고들을 보면, 원인으로 실직, 부채 등으로 인한 생계유지의 어려움, 질병, 돌봄 및 간병 등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 여성, 노인, 장애인뿐만 아니라 최근 청년, 중장년 이슈가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사건·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복지시각시대 및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 복지전달체계에 관한 논의로 집중되고, 사회보장체계와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한 다각적 방안들이 제시되고 있다. 이와 더불어, 공통적으로 강조되는 것은 바로 지역사회의 역할과 지역사회를 함께 살아가고 있는 주민들의 관심과 참여의 중요성이다. 온기나눔이 마음속 온기를 다양한 방식으로 이웃에게 나누고 따뜻한 지역사회를 만들어가자는 의미임을 고려할 때, 지역사회 내 함께 살아가고 있는 취약계층, 이웃에 대한 관심과 온기가 어느 때보다 중요하고 절실한 때이다.

사단법인 대구자원봉사포럼(Daegu Volunteer Forum)은

대구시민 자원봉사활동을 범시민운동으로 활성화하고 나아가서는 자원봉사를 통한 아름다운 사회 공동체 건설을 위한 실천적인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자원봉사관계 전문가 및 관련자들이 모여 정기적인 토론과 활발한 의견 교환의 장을 만들고자 2003년 4월에 창립, 2003년 12월 사단법인으로 설립허가 받았습니다. 2024년 현재까지 총 79회의 정기포럼을 개최하였으며, 정기포럼 뿐만 아니라 자원봉사 정보은행 운영, 인정보상 사업, 자원봉사 의제개발 사업, 출판 및 홍보사업 그리고 정책연구사업을 추진 하고 있습니다.

사단법인 대구자원봉사포럼

사단법인 대구자원봉사포럼(Daegu Volunteer Forum)은 자원봉사전문 연구·학술기관으로 2003년 4월 지역 자원봉사 활성화와 인프라 구축을 목표로 설립되었습니다. 학계, 종교계, 시민단체, 언론 등 자원봉사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임원과 운영위원 그리고 일반회원으로 구성되어 자원봉사를 범시민 참여운동으로 확산하고 나아가서는 자원봉사를 통한 아름다운 공동체 사회를 건설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주요사업

- ▷ 정기포럼 및 학술세미나 개최
- ▷ 자원봉사정보은행 운영
- ▷ 자원봉사 의제(Agenda) 개발
- ▷ 출판 및 홍보사업
- ▷ 인정보상사업
- ▷ 정책연구사업


후원계좌

대구은행 / 140-10-001429 / 대구자원봉사포럼
※ 보내주신 후원금은 연말정산시 소득공제 혜택이 가능합니다.

대구자원봉사포럼 제79차 정기포럼

온기나눔, 취약계층 자원봉사 활동으로 사회적 관계망 회복 방안

발행일: 2024. 5.

발행처:  사단법인 대구자원봉사포럼

주 소 : (42664) 대구광역시 달서구 성당로 291(두류동)

연락처 : T. (053) 653-1365 F. (053) 652-8067

E. dvforum@hanmail.net